▣ 그림 여행

작은 소녀와 여인의 초상

(Portrait of Woman with a Little Girl c. 1681이전 추정)

피에트로 파올리니 (Pietro Paolini 1603 - 1681)

(캔버스에 유채 73 cm x 98 cm
프랑스 령 코르시카 페슈 미술관)

프랑스령 코르시카의 작은 도시 아작시오에 있는 페슈 미술관. 이 곳이 특별한 이유는 아작시오가 나폴레옹의 출생지이며 이 미술관의 설립에 그의 외삼촌인 조제프 페슈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페슈는 아작시오의 이름없는 성직자였으나 조카가 황제 자리에 오르자 리옹의 대주교와 교황청 전권대사의 자리에 오르면서 하루 아침에 수직 신분상승을 이루었다.

페슈는 권력과 부를 잡으면서 당대 가장 적극적인 예술품 수집가로 변신했다. 혁명 당시 미술시장은 온 유럽에서 모여든 그림과 공예품으로 넘쳐나고 있었는데 페슈는 자신의 소장품으로 유럽 미술사의 흐름을 펼쳐 보이겠다는 야심을 품고 거의 삼만 점에 달하는 그림을 모았다고 한다. 1838년에 페슈가 사망했을 때 유언 집행자로 지정된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 보나파르트는 아작시오에 페슈 미술관을 지어 외삼촌의 그림들을 모셨다.

여기 '작은 소녀와 여인의 초상' 은 17세기 화가 피에트로 파올리니의 그림으로 페슈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 중의 하나이다. 페슈 미술관에 실제로 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작시오에 가서 직접 이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아 기행문을 썼던 독일 작가 W.G. 제발트의 미술관 탐방기를 읽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화폭에는 좌측 끝에만 아주 짙은 고동색으로 바림질 된 칠흑같은 바탕을 뒤로한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그려져 있다. 여인의 두 눈은 커다랗고 침울하며, 시커먼 드레스는 여인을 둘러싼 어둠과 좀처럼 구별되지 않아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옷감의 구김과 주름이 하나하나 묘사되어 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다. 오른팔로는 자신의 어린 딸을 보호하듯이 감싸 안고 있으며, 아이는 그림 끝을 등지고 몸을 옆으로 돌린 채 어머니의 앞에 서 있다. 금방 울음을 그친 듯 자못 엄숙한 아이의 얼굴은 조용히 저항하듯 감상자를 향하고 있다. 소녀는 홍벽색 드레스를 입고서, 전장에 나간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함이든 우리의 사악한 눈길을 방어하기 위함이든 8 센티미터 남짓한 병장 인형을 우리 쪽으로 들어 보이고 있는데 그 인형도 마찬가지로 붉은 옷차림이다. 나는 두 사람의 초상화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그림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인생의 만 가지 불행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침울하게 가라앉은 그림 속 두 모녀의 모습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사람들의 비애를 오롯이 읽어낸 작가의 감수성과 통찰력이 놀랍다. 어둠 속에 비치는 한줄기 빛 속에 애달프게 박제된 이 모녀의 초상화를 보기 위해, 그리고 풍운의 사나이 나폴레옹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해 언젠가 코르시카에 꼭 한 번 가 보고 싶다.

《김동백》